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②	③	③	③	①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④	③	②	①	①	②	③	①

1. -문법문제-난이도 중>하(고1 영어 문법문제 지문 변형 2005~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지문)

① step board~: ~에 탑승하려 오르다.

aboard : (배·기차·비행기 등에) 탄, 탑승[승선]한

② track to land :착륙할 선로(길)

여기서 land는 자동사로서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다.

여기서 land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③ 간접의문문의 순서를 묻고 있다.

why(의문사)+he(주어)+did(대동사) so(부사)

의문문이 명사절로 쓰일 때는 간접의문문의 순서를 따른다.

④ lie(거짓말하다)-lied-lied

lie(눕다,놓이다)-lay-lain

lay(놓다,날다)-laid-laid

lied는 lie(거짓말하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으로 주어진 문장의 자릿값은 shoes를 꾸며주는 준동사의 자릿값, 즉 분사의 형태의 준동사가 들어가야만 옳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shoes를 꾸며주는 lie(눕다,놓이다)의 현재분사형태로 꾸며주는 것이 옳다.

The poor man who finds the shoes (which is) lying on the track will now have a pair he can use.

2.-생활영어문제-난이도 중<하

무슨 문제 있어,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회사가 노동인력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상사하고 이야기 해봤어?

응 했지. 근데 (복직될) 운은 없었어.

난 당신이 테드(상사)의 오른 손(팔) 인줄로만 생각했어.

맞아, 근데 그가 날 등쳤어(배신했어).

기운 내. 내생 각엔 그가 실수하고 있는 거야.

① 그가 나에게 보상을 해줬어

② 그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③ 그가 내 등에 칼을 꽂았어.-> 배신하다.

④ 그가 내말을 끝이곧대로 믿었어.

3. 빈칸 추론 문제 난이도 중<하

toward: [시간의 접근] ...가까이, 무렵, ...쯤

해석:

중세시대 말 쯤, 인류는 수술을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수술들은 수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상처에 붕대를 감는 일들로 자신들의 일을 한정했다. 외과적 수술들은 이발사나 돈이 없어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의사들이 시장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수행되는 것이었다. 그 시대의 수술이란 너무 잔인하고 야만스러워서 16세기에 살던 Gregory of Tours라는 사람이 충고하기를 수술을 받기보다는 성자를 모방해서 참을성 있게 고통을 견디라고 했다.

해설:

글 전반에 걸쳐 중세시대의 외과적 수술이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나 이발사나 떠돌아다니는 의사들이 할 정도의 수술이라면 그 수술이란 참으로 끔찍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Gregory라는 사람의 말을 빌어, 수술보다는 성자처럼 고통을 인내하라고 썬기를 박았으므로 빈칸 추론은 꽤나 쉽게 나올 수 있다.

4. -문법문제-난이도 중=하

① prompted는 문장의 동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접속사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분사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4형식 동사가 아니라면 과거분사일 때에 뒤에 목적어는 생략되어야 하는데 목적어가 존재하므로 이 문장은 능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rompting이 적절하다.

② 정답: controlled가 뒤의 목적어 없이 과거분사형태로 적절하게 위치하였으며 checkpoint를 수식한다.

③ 문장의 본동사는 were이며 삽입절로 Avakov said가 들어갔다. 따라서 cited는 과거분사의 형태일 것인데 뒤의 목적어가 왔으므로 능동의 형태인 citing으로 고쳐야 적절하다.

④ occur 은 자동사이며 수동의 형태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was를 삭제하여 능동의 형태인 occurred로 고쳐야 적절하다.

5. -독해문제-난이도 중<하

소재는 Robert Schuman의 피아노 업적이며 이 사람의 업적이 당시대의 Brahms 과 Mendelssohn 과 같은 사람에게 밀렸지만 사실 다른 작곡가들과는 다른 특별한 심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주제문을 담고 있는 문장은 아래와 같다.

But they actually have an unusual aesthetic.

따라서 보기 중 주제로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면 ③번 Robert Schuman의 음악적 성과의 재평가가 적절하다.

6. 독해 일치-난이도 중>하

① Amy Lanston 은 첫 소설에 결점들이 있다.

② Amy Lanston은 장황한 문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피했어야 한다.

③ Amy Lanston은 좀 더 규칙적인 기반으로 동의어 사전을 사용할 것을 충고 받았다.

④ Amy Lanston은 자신의 소설 구성에 있어서 꼬아 놓는 것과 전환시키는 것을 더 적게 사용해야만 했다.

해석

『A Happy Place』는 Amy Lanston의 첫 번째 소설이다. 그 책은 적어도 책 일부분에서라도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야 한다고 말해져야만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녀는 묘사하는 데에 재능이 있었지만 그녀의 묘사 문단들은 종종 장황해서 그녀의 언어사용이 꽤 자주 강요받아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녀가 유의어 사전을 팔꿈치 가에 항상 두고 일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좀더 부족한 듯이 유의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책의 구성이 너무 얽혀있어 (독자가) 따라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있다. 나는 계속해서 몇몇 페이지를 앞으로 돌아갔는데 이유는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해설

Amy Lanston은 If so, she should use it more sparingly.라고 언급이 되어있으므로 it에 해당하는 유의어 사전(동의어 사전)을 사용하는 것을 줄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③ 유의어 사전(synonym finder)를 더 규칙적인 기반으로 사용해야한 다는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

7. 독해 일치문제- 난이도 중<하

- ① James Dickey는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
- ② James Dickey는 시보다 소설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 ③ James Dickey는 그의 가족들의 지성적 유산을 자랑스러워했다.
- ④ James Dickey는 많은 방면에서 재능을 보여줬다.

해설:

시인 James Dickey는 모든 자랑거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대학 축구 이자 육상에서의 스타인 그는 2차 세계대전에서 100개의 임무 비행들을 했다. 그는 성공한 광고 작가였으며 전문 궁수 이자 기타 연주자였다. 그는 또한 시집 20권 이상을 출간하였으며 시 부분에서 전미 도서 상을 수상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시의 작은 독자들을 넘어서서는 Dickey는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선을 사로 잡는 소설의 작가로 유명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집세를 내기 위해 3권의 소설들을 쓴 것이라고 항상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Dickey의 일생을 통하여 괴롭혀온 많은 모순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는 그가 인정하기에 “예술에 관심이 없고 누구도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만큼 흥미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출신이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젊은 시절의 반 지성주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해설

글 전반은 James Dickey와 같이 모든 방면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며 장점을 늘어놓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집세를 내기위해 소설을 쓰다가 본업인 시 영역에서보다 더 유명해졌다. 마지막에는 James Dickey가 사실 지성을 갖추지 못한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James Dickey가 가족의 지성적인 유전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보기 ③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8. 문법문제- 난이도 상=중

- ①fold는 타동사로 생각하기 쉬어 목적어가 없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동사로 접다라는 뜻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은 틀리지 않다.
- ② handful라는 단어는 형용사 같지만 사실 명사이다. 따라서 youngster를 꾸며주려면 handful의 형태를 변형시켜야 할 것이다. “소수의~”라는 뜻으로 “a handful of”를 사용하여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적절하다.

③ 교육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solve뒤에 목적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동태인 be solved 로 변형주어야 적절하다.

④ “~에 익숙하다.”라는 속어는 “be used to ~ing”이므로 to 부정사를 동명사 형태를 변형해주어야 적절하다.

9. 문법문제-난이도 중=하

- ① It that 강조용법 이며 이때 it은 가주어가 되겠다. 형용사 important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 ② 삽입된, parked in fornt of the bank라는 부분에서 parked는 본동사가 아니라 명사 may car를 꾸며주는 분사구문이다. 태는 수동관계이므로 적절하다.
- ③ (사복직 2015 기출 중복) lend는 4형식 동사로 lend 간목 + 직목의 순으로 오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 money앞에 with는 불필요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정법 과거완료를 나타낸 문장으로 if절이 주절 보다 뒤로 간 상황이다. if s+had+p.p, s+might+have+p.p.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10. 독해문제-난이도 상=중

필리핀의 가장 활동적인 화산은 깨어나고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Mayon 산은 필리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곧 상당히 스케일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점진적인 폭발에 있어서 산의 경사면을 따라 큰 용암 덩어리가 구르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지진학 및 화산학 연구소는 화산의 “위험한 폭발”은 불과 몇 주 안에 가능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그 폭발은 지금까지 느끼고 완만하나 9월 17인 밤, 화산은 거의 하루 전날 보다 용암 부산물들을 4배나 더 생산했다. 그리고 매우 뜨거운 바위들이 7마일이나 떨어지지 점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그 활동은 단지 용암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폭발이 있게 된다면, 화산의 모든 경사면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고 Renato Solidum이라는 연구소장이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모험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화산을둘러싼 여러 마을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위험 지역들이고 관계당국은 벌써 수천명의 마을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해설

빈칸추론 문제는 바로 앞의 문장을 확인하면 되는데 (A)의 경우 빈칸의 자리가 turn을 꾸며주는 부사자리이거나 유사보어로서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이다. 앞을 보니 'gradual'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므로 의미적으로는 점진적이었던 것이 -> (turn)~변한다. 라는 이야기므로 'gradual'의 반대의 말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보기 중 'colossal' 엄청난, 거대한의 뜻을 가진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빈칸은 그 앞 문장에 화산을 둘러싼 많은 마을들이 위험지역들이라고 했으므로 관계당국은 마을사람들을 대피시켰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evacuating'이라는 대피시키다는 말이 적절하다.

ing형이 온 이유는 began의 목적어의 형태로 가능한 준동사가 ing와 toV이기 때문이다.

11. 독해 추론문제-난이도 중>하

해석

사무총장은 UN이 다방면으로 핵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실행 계획들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대규모 살상무기와 핵 테러의 확산을 막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해설

아주 간단하게 답을 찾으려면 빈칸 뒤의 toughening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아내 면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UN이 핵안보를 목적으로 삼을 때 어울리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 된다.

또는 둘째 줄에 several action plans에 해당하는 것이 He said~문장의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이므로 several action plans의 예시를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은 흐름상 ①번 (안보를)강화시키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알맞다.

12. 독해일치문제-난이도 상<중

해석: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소말리아에서의 전투와 전쟁들은 모든 우편배달을 중단시켰다. 우편배달 서비스는 1991년 붕괴했다. 소말리아는 지금 좀 더 평화로운 시간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우편배달 서비스는 다시 재개되고 있다. 그 새로운 서비스란 또한 전국적인 우편번호의 도입을 맞이한다. 이러한 것은 소말리아에서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정보통신우정부 장관은 처음으로 소말리아 사람들이 해외로부터 온 편지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며,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내국민) 편지를 다른 나라로 부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서비스의 재개는 길고 긴 분쟁이후에 소말리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한 가지 예일 것이다. 또다른 최근 사례는 Mogadishu라는 수도의 호화스러운 호텔에 자동현금인출기(ATM)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말리아가 ATM을 처음으로 가져본 것이다. 소말리아 사람들은 그 뉴스를 듣고 굉장히 흥분했다.

- ① Mogadishu 은행은 20년이 지난 수 처음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 ② 소말리아의 우편 서비스는 다른 나라들로 편지를 보내는 것을 포함한다.
- ③ 호화스러운 호텔의 재개는 소말리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하나의 예이다.
- ④ 사기업은 소말리아에서 우편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해설

- ① Mogadishu 란 수도의 호화스러운 호텔은 언급이 되었으나 Mogadishu 은행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② 정보통신우정부 장관이 말하는 부분에 소말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편지를 부칠 수 있게된다는 것을 언급했다.
- ③ 호화스러운 호텔이 소말리아를 정상으로 돌아온 하나의 예라는 언급은 없고 우편서비스의 재개가 정상으로 돌아온

하나의 예라고 말했다.

- ④ 사기업이 우편서비스 재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언급이 없다.

13. 독해지칭문제-난이도 상<중

사람들이 식사할 때 친구들과 같이 앉아있을 때, 그들은 서로 서로 빵을 나누라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표현은 친구들이 모여서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즐거운 식사 예절을 갖춘 환경을 상징하고 있다. 빵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불리어져 왔다. 사람이 소비하는 이러한 유형의 빵은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예를들면, 하얀색 빵은 전통적으로 상위층이 소비해온 반면에 색이 어두운 빵은 빈곤한 사람들에게서 소비되어왔다. 빵에 대한 미신들은 또한 문서로 기록되어왔다. 그리스 군인들은 전쟁터로 빵 한 조각을 집으로부터 가져왔는데 이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안전과 성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였다. 영국 산파들은 악귀가 산모와 아이를 사로잡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임마가 된 사람의 침대 발치에 빵 한 덩이를 놓아둔다.

해설

- ① 가까운 인간관계-맨 처음 도입부분에 친구들 끼리 나누는 빵은 따뜻함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다.
- ② 다양한 사회적 지위-글 중간에 하얀 빵은 상위 층을 어두운 빵은 하위층을 의미한다고 나와있다.
- ③ 민족의 믿음- 맨 아래 부분에 특정민족인 영국의 산파들이 새로운 산모의 침대발치에 빵을 놓는 미신을 말하고 있다.
- ④ 일상을 이야기 해주는 빵에 대한 언급은 없다.

14. 생활영어문제-난이도 중<하

Jessica, 왜 집에 있어? 도서관에서 시험대비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아?

더 이상 거기에는 머물 수가 없었어. 너무 소음이 심해서. 너무 시끄럽다고? 무슨 말이야? 도서관은 조용하게 되어있어야 응당 맞는 거잖아.

글쎄, 이 도서관한테는 맞지 않는 듯해. 어떤 사람의 전화기가 항상 울리는 것 같아. 진짜 미치겠어.

도서관은 핸드폰에 관한 규정이 없니?

당연히 있지! 핸드폰을 끄거나 무음모드로 두라는 문구들이 있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 ①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도서관 사서는 없단니?
- ② 왜 그들에게 전화기를 끄라고 말하지 않았어?
- ③ 도서관은 핸드폰에 관한 규정이 없니?
- ④ 그런 일에 대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해설

빈칸 뒤의 문장에서 극한 공감을 하며 경고문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빈칸은 핸드폰에 관한 경고 문구 혹은 정책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보는 ③번이 가장 적절하다.

15. 문법문제-난이도 상>중

- ① look은 2형식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have been looked->have looked로 변형한다.
- ② evolve가 마치 수동태가 될 것 같지만 자동사로 '진화하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소화하고 있으므로 틀리지 않다. involve도 마찬가지로 자동사로 쓰였다.
- ③ those 라는 비교대상이기 옳지 않다. those 가 가리키는 대상은 사실 the skeleton이기 때문에 단수인 that으로 사용해야 옳다.
- ④ 많은 과학자들이 믿어온 것이지 믿어짐을 당한 것이 아니며 문법적으로도 that절이라는 목적어절이 있기 때문에 수동태는 불가하다. 따라서 had been believed-> had believed로 변형한다.

16. 독해추론문제-난이도 중=하

위성이미지는 “갈색 구름들”이 중국 동부를 덮은 것을 보여준다. 그 악명 높은 그을음, 스모그 유독성 화학물질의 혼합은 태양을 가리고 있으며 아시아의 많은 지역의 수백만의 사람들 폐를 더럽히고 있다.

해설:

중국의 안 좋은 황사나 각종 유해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물질들이 태양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태양을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번 blotting out: 가리다, 막다가 가장 적절하다.

- ① blotting out :막고 있는
- ② poring over: 자세히 조사하는
- ③ catering to: 먹이고 있는, 요구를 맞추고 있는
- ④ resorting to: 의지하고 있는

17. 독해추론문제-난이도 상>중

그 보고서는 담배 산업이 금연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효과들(그 경제 적인 효과는 조심스럽게 수행되었고 동종 전문가 리뷰를 거친 것이다.)를 손상시키기 위해 왜곡된 연구에 자금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에 강력하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 보고서는 그 연구들이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고 있고 과학계가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even as) 논란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덧붙였다.

해설:

even as: ~한다고 해도라는 것에 주목하면 담배회사가 무엇을 막고 있는지 보기에서 찾으려 되는 문제였다. 문단의 도입부터 담배회사가 자금을 투여하여 담배의 유해성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파헤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문장역시 담배회사가 무엇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추론하면 된다.

- ① 과학계가 합의에 이르렀다.
- ② 문제에 대한 논쟁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다.
- ③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른 관련 문제들을 제거시킨다.
- ④ 과학적 연구 방법들은 강력하게 정립되었다.

18.

독해추론문제- 난이도 상=중

최면에 걸린 사람은 최면상태가 된다. 그 상태란 어떤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설:

지문은 해석이 되어도 보기의 어휘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서 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제 였다.

여기서 lap이란 어떤 한 부분 한 구간을 말하는데 동사일 경우 '~한 구간에 들어가다' 즉 '어떠한 상태에 빠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trance라는 무아지경 상태에 어울리는 동사가 되겠다.

- ① ~에 나타나다.
- ② ~에 빠지다
- ③ ~에 비슷하게 하다
- ④ ~에 철썩거리다

19. 독해 순서문제-난이도 상>중

해설:

두 개의 그룹 모두 그다음 똑같은 회피-도피 조건에 놓여졌다(Second experiment): 그들은 어떤 한 소리를 듣고 나면 장애물을 넘어서 충격을 피할 수 있다.

아마도 유기체가 그들의 행동과 외부 개입사이의 연관성(그게 다가 아니더라도)을 알 수 있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는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 Seligman과 Maier에 의해 실행된 원형 실험에서, 예상할 수 없도록 간헐적인 고통스런 충격을 개들에게 주었다. (First experiment)① 통제집단의 개들은 레버를 누르면 충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실험집단은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② 그래서 한 그룹의 개들은 충격을 제거할 수 있는 행동을 배웠지만 반대의 그룹은 배우지 그러지 못했다. ③ 첫 단계에서 충격을 제어했던, 통제 집단의 개들은 쉽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법을 배웠다. ④ 대조적으로, 실험집단의 개들은 흐느껴 울거나 소리를 지를 뿐 충격을 피할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충격을 피할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의 행동과 충격을 받는 것과의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라고 배웠다.

해설:

첫 번째 실험은 레버를 누르면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며 두 번째 실험은 소리를 들으면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되는 기점을 then이라는 부사에 중점을 두어 보아야 할 것이다.

20. 독해 추론 문제-난이도 상 <중

해설:

유로화 보다 달러화가 가치가 있었던 마지막 시기는 200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인들의 통화가 생겨난 지 3년이 막 지났을 때이다. 그러나 그 후로 몇 년 뒤 유로화는 수입은 적레 수출은 많이 하는 대륙으로 강력한 힘을

얻었다. 그 유로화는 사상 최고치인 1.59달러까지 가치가 솟았다. 2007년에 전 연방 준비의원회장 Alan Greenspan은 유로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다른 말로는, 모든 사람들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달러를 대체할지를 궁금해 하기 충분했다고 한다. 그리고 슈퍼모델 Gisele Bundchen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유로로 급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것은 상당히 의견 일치가 되었다. 그러나 달러의 소멸에 대한 이러한 보고들은 굉장히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후로 1년이 되지 않아 유로화는 달러에 반해 24%나 가치 하락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유로화의 원대한 포부를 잊었다.

해설

(A) 는 유로화는 수입은 적게 수출은 많이 했으므로 분명 국내로 통화가 많이 유입이 되었을 것이므로 힘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보기로는 ②번과 ④번이 탈락한다.

(B) 는 유로화의 가치가 1.59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는 앞의 말을 빌어 세계로 보편화된 달러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여기서는 replace도 expel도 가능성이 둘 다 있다.

(C) 는 반전으로 유로화가 달러에 반해 24%나 가치가 하락했고 모두들 그 원대한 포부를 잊었다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답은 forget뿐이다. ③번의 pursue는 정답으로 탈락시킨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